

## 新羅 黑衣長槍末步幢

徐 榮 教\*

1. 머리 말
2. 고구려의 영향, '幢'
- 3.矛와 三丈의 長矛
4. '百衛'과 幢
5. 右側으로 기울어진 陣의 사선
6. 맺 음 말: 黑衣長槍末步幢과 長槍幢

### 1. 머리 말

黑衣長槍末步幢은 幢主가 총 264명으로<sup>1)</sup> 신라의 군관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다고도 볼 수 있다. 신라군에는 長槍步兵의 비중이 단연 높았다. 264개의 黑衣長槍末步幢이 존재했으며, 그것은 특수부대가 아니라 군 조직 편

\* 중원대학교 박물관장

1) 『삼국사기』 권40, 무관조, “黑衣長槍末步幢主, 大幢三十人, 貴幢二十二人, 漢山二十八人, 牛首二十人, 完山二十人, 紫衿二十人, 黃衿二十人, 黑衿二十人, 碧衿二十人, 赤衿二十人, 靑衿二十人, 綠衿二十四人, 共二百六十四人, 位自舍知至級浪爲之.”

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력 병력이었다.

黑衣長槍末步幢은 신라의 주력군단인 六停과 九誓幢 예하에 배치된 부대이다. 육정에는 河西停을 제외한 5개 사단, 즉 大幢에 30개·貴幢에 22개·漢山州停에 28개·牛首停에 20개·完山州停에 20개가 있었고, 구서당에는 長槍幢과 白衿誓幢을 제외한 7개 사단, 즉 紫衿誓幢에 20개·黃衿誓幢에 20개·黑衿誓幢에 20개·碧衿誓幢에 20개·赤衿誓幢에 20개·靑衿誓幢에 20개·綠衿誓幢에 24개가 있었다.

창을 든 보병의 陣과 陣이 서로 부딪쳐서 먼저 대열이 깨지는 쪽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고대의 전투였다. 창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유서 깊고 보편적인 무기이다. 화약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sup>2)</sup> 화약무기가 등장한 직후에도 그것은 그 자리를 유지했던 것 같다. 총기가 전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나서야 그것은 역사의 전면에서 물러났다. 장창보병에 대한 연구는 전근대의 전쟁사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黑衣長槍末步幢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일영 교수는 幢의 병력 수는 중국 남북조의 여러 나라와 수당의 군사제도에서 100명이었고, 신라의 경우도 弩幢의 병력 수가 그러했음을 고증했다. 나아가 黑衣長槍末步幢도 같은 수의 병력을 가졌다고 보았다. 또한 장창의 길이나 형태, 용도 그 종류 등을 상세히 분석했으며, 나아가 서양의 그리스 중장 장창보병의 운용을 참고하여 흑의장창말보당의 병력편제와 전투대형 등을 치밀하게 복원했다.<sup>3)</sup>

본고에서는 신라의 黑衣長槍末步幢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

2) 김산·김주화·김창우·송일훈, 「韓·中·日 長兵武藝 長槍 研究」, 『한국체육학회지』 47권 6호, 2008, 39-49쪽.

3) 윤일영, 「신라가 대백전시(서기 660) 투입하였던 부대 수, 병력 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군사학연구』 5,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393-599쪽, 특히 528-551쪽. 『삼국사기』 무관조에 보이는 여러 '幢' 가운데 弩幢의 군관 수가 완벽하게 나와 있다고 한다. 윤일영 교수는 그것을 기준으로 당의 인원수와 조직 구성을 복원했다.

하여 전근대 군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장 비중이 높은 창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라의 흑의장창말보당과 유사한 형태의 무기와 군대를 조사해 보았다. 무기와 전술만큼 세계적인 보편성을 띄는 것도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창병 Phalanx(陣)의 운영과 발달과정 에 대한 기존의 상식은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번역된 독일의 전쟁사가 한스 텔브뤼크의 저서 『병법사』(민병길 譯)는 이 글의 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필자는 九誓幢 9개 사단 가운데 하나인 長槍幢과 구서당, 六停의 거의 모든 사단 예하에 배치된 黑衣長槍末步幢의 성격을 對騎兵 장창보병으로 파악했다.<sup>4)</sup> 하지만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黑衣長槍末步幢이 대기병뿐만 아니라 對步兵이나 對長槍步兵 작전도 수행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기병의 사용이 제한되었던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신라에서 黑衣長槍末步幢은 對보병 작전에서 출발한 군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sup>5)</sup>

4) 徐榮教,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慶州史學』 17, 1998.  
 徐榮教, 「新羅 河西停 軍官組織에 대하여」, 『新羅文化』 17·18, 2000. 12, pp. 109-127.  
 徐榮教, 「蘇定方の 長槍步兵과 對西突厥 戰鬪」, 『中國古中世史研究』 15, 2006, pp. 273-300.  
 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5) 黑衣長槍末步幢의 창설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발굴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신라에서 창병은 보편적으로 존재했으며, 그것이 어느 시기에 제도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마도 그 시기는 신라의 병제가 대폭적으로 정비되는 진흥왕대가 아닌가 한다. 신라가 장창을 사용한 원인은 낮은 생산력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가난한 신라인들은 허리에 비싼 劍을 차고 있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판금을 한 방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개인적인 단병접전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장창을 두 손으로 잡고 陣을 이루는, 조직력에 더욱 의존하는 전투를 해야 했다. 현재의 경우를 유추해 보면 신라의 산간지방에는 장창을 만들 수 있는 특정 나무가 많았다. 노간주나무가 그것이다. 그것은 경상도의 산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물론 원산지는 한국이다. 내한성이 강하고 건조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 수고 8m, 지름 20cm 정도 자라며 가지가 위로 솟아 빗자루처럼 된다. 수피는 회갈색 또는 적갈색으로 세로로 갈라지고 벗겨진다. 잎은 바늘잎으로 마디마디에서 3~4개씩 돌려나며 3개의 능선이 있고, 표면에 좁은 백색의 흠이 있다. 전국 산야의 양지 바른 산비탈에 자생하는 상록침엽고목이다. 섬유조직의 밀도가 아주 조밀하여 말렸을 때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으며, 잘 부러지지 않아

## 2. 고구려의 영향, ‘幢’

신라군대의 군 편제 단위는 ‘幢’이었다. 이는 고구려의 영향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신라는 400년 광개토왕의 남정 이후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 고구려는 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해주었다. 幢은 「廣開土王碑文」 14년 조에 나온다.

十四年甲辰而倭不軌侵入帶方界□□□□石城□連船□□□王躬率□□從平穢  
 □□鋒相遇王幢要截濫刺倭寇潰敗斬煞無數(『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1992))

광개토왕 14년(404)에 왜구가 대방계(황해도)를 침범하였다. ‘王幢’이라고 하여 “왕의 군대, 또는 왕의 부대가 倭寇를 요절탕자(要截濫刺)하니 무너져 패하여 참살된 자들을 셀 수가 없었다(潰敗斬煞無數)”라 하고 있다. ‘중원고구려비 에도 ‘幢’은 나온다.

前部太使者多弓桓奴主簿貴  
 □□□(境)□募人三百新羅土內幢主下部(拔)位使者補奴  
 □疏奴(□)(凶)鬼盖盧共(□)募人新羅土內衆人跽(動)□□(『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1992))

“전부 대사자 다우환노와 주부 귀도(貴道)가 국경 근처에서 300명을 모았다. 新羅土內幢主 하부(下部) 발위사자(拔位使者) 보노(補奴)와 개로(盖盧)가 공히 신라 영토 내의 주민을 모아서 …로 움직였다.” 신라땅 내부의

劍으로도 쉽게 자를 수 없다. 벌레들이 구멍을 못 뚫을 정도이다. 습도에도 예민하지 않다. 물에 들어가도 잘 젖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도 창 의 자루로 사용되었다. 유연성이 탁월하여 지금도 그것의 작은 줄기는 소의 코뚜레와 도끼 자루로 사용되고 있다(중원대 하종필의 구술).

‘당주’ 하부 발위사자 보노가 나온다. ‘新羅土內幢主’란 어느 정도 규모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권14, 웅락천황 8년 조의 기록이 주목된다.

“미가도(왜국)의 마음을 (신라가) 두려워하여 고려와 친선을 맺었다. 그래서 고려왕은 精兵 100명을 보내어 신라를 지키게 했다.”

100명 정도의 병력으로 고구려가 신라를 지켜준다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시기의 『일본서기』 기록은 문제가 많다. 하지만 그들이 군사 고문단이라면 달라진다. 신라의 군대를 보다 조직화하고 성곽을 치밀하게 배치하는 감독을 할 수 있다. 그것은 군대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실 신라의 군사제도는 고구려의 영향이 짙게 남아 있다. 100명이란 숫자를 그렇게 불신할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始立軍法 千人爲軍, 軍置將一人, 百人爲幢, 幢置帥一人”(『魏書』 권103, 蠕蠕傳).

蠕蠕(柔然)이 처음 군법을 세울 때 ‘100인으로幢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 「중원고구려비」의 ‘幢主’는 ‘幢帥’와 일맥상통한다. 둘 다幢의 통솔자이다. 유연은 402년경, 사륜(社崙)이란 영웅이 나타나 흡도(Qobdo)와 우룽구(Urunggu) 근처에 있던 高車를 멸망시키고 세운 유목제국이다. 제국의 영토는 동으로는 고구려로부터 서쪽으로는 이르티쉬(Irtish)강 상류에 이른다. 5세기에 유연은 고구려와 손잡고 북위를 견제했다. 『魏書』 권100, 百濟傳을 보자.

고구려는 남쪽으로 劉氏(송)와 통하고 북쪽으로 蠕蠕(유연)과 맹약하기도 하여 서로 脣齒관계를 이루면서 王略(북위)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472년 백제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올린 청병표 내용의 일부이다. 유연과 고구려의 공동의 적인 북위는 유목민 선비족이 세운 국가이다. 그들은 강력한 기병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고구려와 유연은 밀착했다. 479년 고구려는 유연과 모의하여 동몽골지역에 있는 유목민 지두우족을 침공하여 분할하기까지 했다. 고구려가 유연의 군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물론 유연뿐만 아니라 중국대륙의 여러 나라들의 영향도 받았을 것이다. 6세기 중반 한강유역 진출을 할 당시의 「단양신라적성비」를 보자.

鄆文村幢主沙喙部澹設智及干支勿思伐  
城幢主喙部助黑夫智及干支節敎事赤城也爾次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 (1992)〕

당주는 州에 설치된 군주보다 하위단위의 군사 책임자로 촌이나 성에 설치되었음은 여기에 나오는 ‘鄆(추)文村幢主’·‘勿思伐城幢主’에서 알 수 있다. 이들 추문촌당주와 물사벌성당주가 당시 적성지방의 공략에 참가한 사람인지, 적성 점령 후 그 지방에 설치한 당주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6세기 중반 신라의 지방군사제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는 5세기 초부터 신라에 군사제도를 이식시켰고, 지워지지 않는 깊은 영향을 남겼던 것이 확실하다. 알다시피 신라 핵심군단 六停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주둔사단의 명칭은 ‘大幢’이었다. 고구려의 大模達은 5부 병을 위한 군병으로 구성된 수도주둔군 ‘大幢主’였다.<sup>6)</sup> 따라서 고구려의 수도주둔사단 역시 ‘大幢’이었다.

추문촌당, 물사벌성당이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된幢이라면 黑衣長槍末步幢은 통일된 무기를 중심으로 편성된幢이었다. 黑衣長槍末步幢은 6세기

6) 『고려기』, “그 무관으로 大模達이 있는데 衛將軍에 비할 수 있으며, 일명 莫何羅繡支 또는 大幢主라 한다. 阜衣頭大兄 이상이 취임한다.”

이후 신라군이 보다 조직화되고 분화된 상태에서 생겨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이란 무기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무기였다. 때문에 추문촌당, 물사벌성당에서도 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三國志』 동이전 동옥저와 동예에서도 확인된다. 창병들이 대열(陣)을 이루는 것은 고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 3. 矛와 三丈의 長矛

矛는 긴 목제의 자루 끝에 뾰족하고 폭이 넓은 양날을 붙인 병기였다. 矛는 최초의 찌르는 무기였다. 춘추전국시대에도 전투 시 주로 矛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후대에 가서 矛는 鎗과 槍으로 분화되었다. 창 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긴 나무자루의 끝을 뾰족하게 다듬고 불에 구워서 날을 강화시킨 것이다.

우리 한국고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三國志』 동이전 동옥저전을 보면 矛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우마가 적고 矛를 가지고 보전을 잘한다(少牛馬 便持矛步戰).

동옥저에는 소나 말이 적어 矛를 가지고 보전을 하는 것이라 한다. 모를 들고 보병전을 하는 동옥저인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矛는 개개인이 싸울 때 쓰는 무기라기보다 대열을 이룰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 중국의 병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陣을 이루고 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정도는 동옥저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三國志』 동이전 동예전을 보면, 동예인들은 長矛를 사용하고 있다.<sup>7)</sup> 그

7) 김철준은 이 기록에 대하여 최초로 다룬 학자이다. 金哲俊, 『能步戰과 便鞍馬』, 『한우근

것은 중국인들이 보기에 동옥저와 동예인들의 창 의 길이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이가 3丈이나 되는 矛를 만들어 혹은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들고 보전을 하는 데 능숙하다(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能步戰).

3丈의 길이는 중국 三國時代 1尺(24.2cm)으로 환산하면 그 10배인 1丈은 2m 42cm가 되고 3장은 7m 26cm가 된다. 그 길이는 창이 휘어져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이 기록을 남긴 중국인들이 직접 동예인들의 창 길이를 자로 측정해 보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의 키 3배를 초과하는 대단히 긴 창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周禮』 고공기에는 창 의 길이가 최소한 사람의 키보다는 커야 하며, 신장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 전국시대 일본에서는 長柄槍이라 하여 최고 640cm에 달하는 창이 도보집단전투의 주역으로 활용된 바 있다고 한다.<sup>8)</sup> 한반도보다 키가 작은 일본인들의 3배 이상이 되는 길이다. 동예사람들이 휘어질 만한 길이의 창을 사용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지점에 이른 긴 창이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긴 창을 사용해야 되었다는 말인가. 5m의 창과 6m의 그것을 가진 두 그룹의 장창보병 밀집대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장창을 든 2개의 밀집대형이 정면 승부를 벌이기 위해 접근전을 벌였을 때 1m가 짧은 전자는 후자를 찌를 수 있는 위치에 가기 1m 앞 지점에서 후자의 공격을 받게 된다. 장창보병 간의 정면대결에서 적보다 창 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동예인들이 장창을 가지고 보전을 잘 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陣을 이루고 싸우는 데 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여러 명이

정년기념논총』, 1981: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출판부, 1990, 63-7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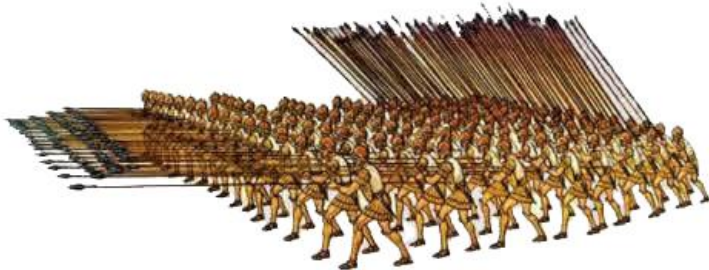
8) 戶田藤成, 『武器와 방어구-일본편』(유준칠 역), 2004.

함께 들고 사용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현재 지식으로서는 필자가 이해할 수 없다. 집단 장창보병의 밀집대형은 [그림 1]과 같다.

마케도니아 장창보병의 모습이다. [그림 1]을 보면 중심으로 4열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창을 앞으로 견양하고 있다. 그야말로 정면으로 접근할 수 없는 허공에 창 받음 이루고 있다. 마케도니아 장창보병의 그것도 휘어질 정도의 길이이다. 중심 4개 대열의 창이 앞으로 포개져 있다. 가장 앞 대열의 창이 가장 멀리 나가 있고, 바로 뒤 대열에 있는 창은 두 대열 사이의 거리만큼 뒤로 가서 포개져 있고, 3열 4열의 창도 그러하다. 이 대열을 옆에서 본다면 착시도 생겨날 수 있다. 3~4명 이상이 6~7m 길이의 창을 함께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장기록이었던 『三國志』 동이전의 기록을 무시할 수 없다. 224년 조위의 장수 관구검은 1만의 병사로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때 대규모의 선비족 기병들이 종군했다.<sup>9)</sup> 고구려 동천왕은 현토태수의 추격을 받아 북옥저 지역까지 도망을 갔다. 그가 북옥저로 피신을 한 것은 이때 관구검의 지시를 받은 낙랑태수와 대방태수가 동예로 쳐들어옴에 따라 남옥저 지방이

[그림 1]



9) 『북사』 권93, 모용외전, “모용외의 할아버지 木廷이 관구검을 따라서 고구려 정벌에 공을 세워 이때부터 좌현왕이라고 했다.”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sup>10)</sup> 동예인들의 보병전투를 兩태수가 직접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三國志』 동이전의 기록에 남았을 것이다.

그러나 창 하나를 2사람 이상이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장창보병의 밀집대열(陣)에서 병사들이 각각 창 하나를 여럿이 잡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앞에 있는 창병은 적을 제대로 견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용이 부자연스러워 적을 제대로 찌를 수도 없다.

장창보병은 위의 그림과 같이 중심상으로 여러 겹을 배치하고 있다. 장창은 그 길이 때문에 잘 부러졌다. 창병 대열 간의 싸움이 벌어져서 맨 앞 대열 병사의 창이 부러지면, 뒤에서 새 창을 전달해야 했다. 선두 1~2열에 선 병사가 가장 노련한 고참이었다. 사상자의 빈자리는 바로 뒤에 있던 병사가 공백을 메우거나, 다른 병사가 앞으로 나아가 주인을 잃은 창을 쥐고 싸워야 했다. 그것이 “或數人共持之”라고 표현된 것은 아닐까.<sup>11)</sup>

어떻든 기록을 그대로 본다면 동예인들의 창은 매우 긴 창이었다. 그렇다면 옥저의 矛와 동예의 長矛의 전투형태에서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뒤에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는 것처럼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矛는 방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방패는 적의 진과 충돌했을 때 적을 밀어내는 중요한 무기이며, 창을 휘두르는 방식도 오른손에 矛를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든 상태에서 오른손으로만 창을 앞으로 내지른다. 여기에 반해 長矛는 두 손으로 거의 허리선 가까이 창을 두고 찌르는 방식이었다.

모든 힘이 창에 집중되어 있으니 방패는 왼팔에 걸고 다닐 정도로 작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창 길이의 조직력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장창보병은 창보병보다 밀집된 대열을 취하며 개인적인 전투를 극히 자제한다. 최

10) 이기백·이기동, 『韓國史講座』(古代篇), 일조각, 1982, 124쪽.

11) 윤일영, 「신라가 대백전서(서기 660) 투입하였던 부대 수, 병력 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군사학연구』 5,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528-551쪽. 앞 논문의 저자에게 “或數人共持之”란 자료를 보여주고, 장창보병의 전투장면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은 것이다.

대한 밀집된 형태의 대열을 갖추으로써 적 병사들과 1 대 1 전투를 피할 수 있도록만 하면 대형 후미에 있는 병사들은 완벽한 보조 장비 없이도 필요시에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sup>12)</sup> 이 점 黑衣長槍末步幢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 4. ‘百衝’과 幢

신라 黑衣長槍末步幢의 ‘末步’란 보폭이 적은 상태를 의미하며, 따라서 밀집대형의 보폭을 말한다.<sup>13)</sup> 장창이란 하나의 존재는 의미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밀집하여 고슴도치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위력을 발휘한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싸울 수도 없다. 그것은 일반 모든 창병은 물론이고 전투에서 기본이다. 신라의 黑衣長槍末步幢은 ‘末步’란 의미가 암시하듯이 밀집대형을 이루고 전투에 임했을 것이 확실하다.

『일본서기』 권11, 인덕천황 53년 5월 조에 신라군 대열(陣)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 “(왜국왕이 말하기를) 만약 신라가 대항하거든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라”고 하고, 날랜 병사를 (田道에게) 주었다. 신라는 군사를 일으켜 맞섰다. 이때 신라인은 매일 싸움을 걸어왔다. 그러나 田道(왜인 장수)는 요새를 굳게 지키고 나가지 않았다. 그때 신라 병졸 한 명이 진영 밖으로 나온 것을 붙잡아다가 물으니, “힘 센 사람이 있어 百衝이라 하는데 그는 날래고

용감하여 항상 군의 오른쪽 선봉이 되고 있다. 그러니 기회를 엿보아 왼쪽을 공격하면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신라군이 왼쪽을 비워 오른쪽을 방비하였을 때 田道는 날랜 기병을 계속 보내 그 왼쪽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신라군이 무너지자, 그 틈을 타 병사를 풀어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이고, 4문의 백성을 사로잡아 돌아왔다.<sup>14)</sup>

인덕천황 53년의 일이다. 왜왕은 신라가 조공을 거른 것을 문책하기 위해 사신을 보냈다. 왜의 사신 다카하세(竹葉瀨)의 동생 다지(田道)에게 군사를 주어 보냈다. 위의 기록은 기년 자체에 문제가 많다. 내용도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36회 왜인과의 전쟁 기록을 남기고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신라군이 패하고 사람이 잡혀간 적도 있다.

초기 신라 역사에는 ‘倭’의 그림자가 짙게 투영되어 있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 1대 신라왕인 혁거세 8년(기원전 50)부터 소지왕 22년(500)까지 총 59회의 왜 관련 기록이 보인다. 그 가운데 신라에 대한 왜의 침략기록이 압도적으로 많다. 교빙·구훈·인질·절교 등의 외교기록을 제외하면 36회가 그에 해당된다. 여기에는 왜가 내습한다는 거짓말 1회(지마 11년-122), 왜의 내습에 대한 신라의 전쟁준비 2회(유례 4년-287·소지 15년-493), 신라의 선제공격계획기도 2회(유례 21년-295·실성 7년-408)를 포함한 것이다.

왜가 내습한 지점, 신라가 내습한 왜와 싸운 장소, 왜의 침구에 대비하여 성을 쌓은 곳으로 木出島(1회)·金城(4회)·沙道(1회)·沙道城(1회)·一禮

12) 델브뤼크 著, 민경길 譯, 『兵法史』 1권, 한국학술정보, 2009, 203쪽.

13) 여기서 ‘末’은 적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末步’란 보폭이 적은, 따라서 속보가 아니라는 말이다. 용례를 몇 개 보자. ‘末利’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을 의미한다. ‘末技’는 변변치 못한 작은 재주를 말하며 마찬가지로 ‘末藝’도 적고 보잘 것 없는 재주라는 뜻이다. ‘末藥’ ‘末茶’는 입자를 가루 낸 가루약이나 가루차를 의미한다.

14) 『日本書紀』 卷11, 仁德天皇 53年(365) 夏 5月, “遣上毛野君祖竹葉瀨, 令問其闕貢. 是道路之間獲白鹿, 乃還之獻于天皇. 更改日而行. 俄且重遣竹葉瀨之弟田道, 則詔之日, 若新羅距者舉兵擊之, 仍授精兵. 新羅起兵而距之. 爰新羅人日日挑戰, 田道固塞而不出. 時新羅軍卒一人有放于營外, 則掠俘之. 因問消息, 對曰, 有強力者, 曰百衝, 輕捷猛幹, 每爲軍右前鋒. 故伺之擊左則敗也. 時新羅空左備右, 於是, 田道連精騎擊其左, 新羅軍潰之, 因縱兵乘之, 殺數百人, 卽虜四邑之人民以歸焉.”

部(1회)·長峯城(1회)·長峯鎮(1회)·風島(2회)·吐含山(1회)·獨山(3회)·斧峴(1회)·明活城(2회)·月城(1회)·活開城(1회)·敵良城(1회)·五道(1회)·臨海鎮·長嶺鎮(1회) 등이 보인다.<sup>15)</sup> 바다를 건너온 왜인들은 주로 신라의 수도 주변 지역을 위협했다. 그야말로 신라사는 왜와의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전투내용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본서기』 권11, 인덕천황 53년 5월 조의 기록은 소소한 것이다. 수없이 많이 치러진 신라와 왜인 사이의 전투 기록 가운데 하나이거나, 승리한 왜인들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무용담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의 진실이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포로가 된 신라군 한 명이 왜인들에게 정보를 주었다. “신라군 가운데 百衝이라 하는 날래고 용감한 군인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용감한 그는 신라의 오른쪽 대열(陣)의 선봉장이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왼쪽 대열은 약하다. 그러니 기회를 보아 왼쪽을 집중공격하면 신라군 대열은 무너질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라군의 陣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좌우대열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중앙이 있어야 그것을 기점으로 좌우가 있다. 좌우는 중앙 대열의 존재를 암시한다. 신라군은 왼쪽·중앙·오른쪽 3개의 대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가 왼쪽 대열을 비우고 오른쪽 대열을 강화하자 왜인이 정예기병을 연이어 출격시켜 왼쪽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신라군의 대열이 무너졌고, 그 틈으로 왜병이 몰려 들어왔고, 흩어진 신라군은 수많은 전사자를 냈다.

한 사람의 용감한 자가 지휘관이라면 그가 속한 대열이 강해지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기록을 자세히 보면 百衝이란 자는 지휘관이

15) 旗田巍, 『三國史記』新羅本紀にあらわれた倭, 『日本文化と朝鮮』2, 朝鮮文化史編, 1975: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이는 倭』, 『고대한일관계사의 이해-倭』(김기섭 편역, 이론과 실천, 1994), 108쪽.

요 현장에서 전투를 하는 전사이며, 영웅이다.

하지만 陣에서 군인이 얼마만큼의 용기와 힘을 지닌 존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조직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부과된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것은 개인적 기예와 상관없이 없는 것이다. 규율은 단체적 훈련을 통해 숙달되는 기계적 단결이다.<sup>16)</sup>

그야말로 陣法은 신체의 운동을 눈금처럼 분할하고 통제하는 규율(Discipline)을 병사들에게 體化시키는 작업이다.<sup>17)</sup> 여기서 규율이란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케 하고,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는 것이며,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의 과정에 주목하여 신체운동을 바둑판의 눈금처럼 분할하는 것이다.

규율(Discipline)은 유용성이라는 경제적 관계에서 신체의 힘을 증가시키고 복종이라는 관계에서 보았을 때 그 힘을 감소시킨다. 그것은 신체를 소질·능력으로 만들고 그 힘을 증대시키려는 반면, 신체에서 발생하는 위력을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로 역전시켜 엄한 복종관계로 만들어낸다.<sup>18)</sup> 이때 병사들은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만들어진 신체가 된다. 실로 여기서 다수 인간의 복종에서 나타나는 합리적 통일성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16) Weber는 그의 저서 『경제와 사회』 3권의 13장에서 전쟁 규율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Discipline은 눈에 어두운, 개인적 명예를 쟁취하려고 하는 냉철하지 못한 戰士와는 거리가 멀다고 단언하고 있다(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ol.3(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Bedminster Press, New York, 1968, pp. 1148-1155).

17) Peter Alexis Boodberg, *The Art of War in Ancient China-A Study Based Upon The Dialogues of Li, Duke Wen*, pp. 36-37. Brian Campbell, *The Roman Army, BC.31-AD.337*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4, pp. 15-20.

18) J. S. Captain, *Military Discipline or The Art War*, Published and sold by Robert Morden, London, 1689, pp. 10-15. George W. Currie, *The Military Discipline of the Romans from the Founding of the City to the Close of the Republic*, Pu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Graduate Council of Indiana University, 1928, pp. 30-50.

陣法이란 개개인의 무용이나 현재와 같은 전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병사들의 유기적인 연결에 집중하게 된다.<sup>19)</sup> 여기서 신라군 지휘관 이름 ‘百衝’이 주목된다. 신라의 1개 ‘幢’의 인원이 100명이라는 것과 무관한 것일까. 幢主는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다. 100명으로 구성된 그의 부대는 적을 향해 부딪치는(衝) ‘百衝’일 수도 있다.

### 5. 右側으로 기울어진 陣의 사선

黑衣長槍末步幢의 黑衣는 부대의 제복 색깔이 흑색이라는 뜻이며, 長槍末步幢이란 장창을 든 병사들이 간격과 보폭을 좁혀서 ‘末步狀態=密集狀態’에서 전투를 하는 최소 단위라는 뜻이다.<sup>20)</sup> 물론 여기서 ‘末步’란 ‘速步’의 반대말이 된다.<sup>21)</sup> 밀집된 상태에서 속보로 가면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폭을 좁혀서 末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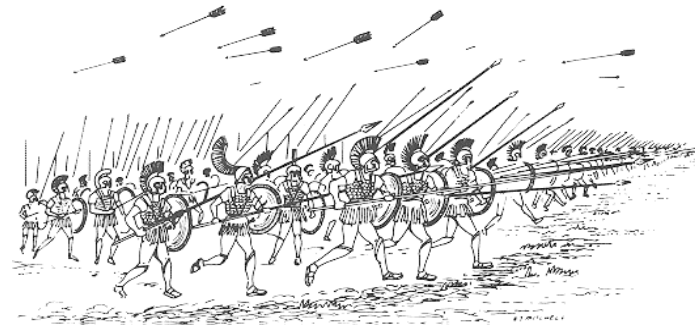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는 자신이 새로 편성한 장창보병부대에게 “발 동지(同志, pezetairoi)”란 특권적 칭호를 부여했다고 한다. 마케도니아 Phalanx(陣)는 그리스의 그것과 달랐다. 마케도니아 Phalanx는 그리스의 그것보다 훨씬 밀집된 대형을 취했고, 그리스의 창보다 더 긴 사리싸(長槍)를 휴대했는데 이 때문에 그들은 선두 여러 횡렬에서 창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밀집장창보병은 형성된 대형(陣) 전체의 운동에너지와 함께 이용될 때 더 큰 위력을 발휘했다. 이런 대형이 정지하여 방어태세를 취한다면 많은 창끝이 가시같이 돌쳐 있는 사이로 적이 침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sup>22)</sup>

19) 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20) 윤일영, 「신라가 대백전서(서기 660) 투입하였던 부대 수, 병력 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군사학연구』 5,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531쪽.

21) 여기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 국문과 권인한 교수로부터 들었다.

[그림 2]



보폭을 크게 하면 [그림 2]와 같이 대열이 영성해진다.

당나라 장군 李靖이 만든 六花陣의 步法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李衛公問對』 中卷을 보자.

隊伍를 세울 때에는 각대의 사이의 간격을 10步로 하고, 駐隊(즉 兵車隊와 步兵隊의 혼성 대대)와 師隊(즉 騎兵隊) 사이는 20보로 합니다. 대마다 하나의 전투대를 두고 전진할 때는 50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1의 호각으로 각대가 분산하되 10보 이내에서 정지합니다. 이와 같이 제2, 제3, 제4의 호각 소리에 이르기까지 각각 창을 겨누고 대기하고 앉았다가, 북을 치면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세 번 크게 외치고 세 번 창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그 후 적진에서 30보 내지 50보까지 나아가 적 동정의 변화를 제압합니다. 이때 후방의 기병(원문-馬兵)은 배후에서 전진하지만, 역시 적진에서 50보를 한계로 하여 일단 절제를 합니다. 正兵을 앞에 세우고 奇兵을 뒤에 따르게 하고 적의 동정을 살핍니다. 다시 북을 치면 奇兵을 앞에 세우고 正兵을 뒤로 돌립니다. 거기서 또 적이 진격해 오는 것을 맞아 그 기회를 엿보아 그 허점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화의 진법이며, 대체로 다 이런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22) 델브뤼크 著, 민경길 譯, 『兵法史』 1권, 한국학술정보, 2009, 201-202쪽.

물론 당나라 六花陣法에서도 창병들이 주력이었다. 여기서 부대 사이의 정해진 간격과 병종의 구분, 전진할 때 정확한 步法의 규정, 그리고 시간 순서에 맞추어진 호각이나 북소리에서 시간과 공간을 눈금처럼 분할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보법에 대해서는 이정의 병법에 대하여 단편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통전』 권149, 병2에서 확인된다.<sup>23)</sup> 집단적 배치를 분해하여 밀집된 다수를 파악하기 좋도록 했다.<sup>24)</sup> 이는 각 대열을 질서와 규율 상태에서 유지시키고, 담당 군관이 그러한 상태의 유지에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 나아가 병사들 각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공간 속에 배치하여 그 가치를 명시하고, 개개인의 복종뿐만 아니라 시간과 동작에 대한 최상의 관리를 확보한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보법이다. '10보' '20보' '30보'로 규정된 보법은 '速步'가 아닌 느리고 보폭을 좁힌 '末步'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23) 『通典』卷149, 兵2, “大唐衛公李靖兵法曰 … 諸教戰陣, 每五十人爲隊, 從營纒槍幡. 至教場左右廂, 各依隊次解幡立隊, 隊別相去各十步, 其隊方十步, 分布使均. 其駐隊塞空, 去前隊二十步. 列布訖, 諸營十將一時即向大將處處分. 每隔一隊, 定一戰隊, 即出向前, 各進五十步. 聽角聲第一聲絕, 諸隊一時散立; 第二聲絕, 諸隊一時捺槍卷幡, 張弓拔刀; 第三聲絕, 諸隊一時舉槍; 第四聲絕, 諸隊一時籠槍跪膝坐, 目看大總管處大黃旗, 耳聽鼓聲. 黃旗向前亞, 鼓聲動, 齊唱「嗚呼!嗚呼!」並去聲. 齊向前, 至中界, 一時齊門, 唱「殺」齊入. 敵退敗訖, 可趁行三十步, 審知賊徒喪敗, 馬軍從背逐北. 聞金鉦動, 即須息喫卻行, 膊上架槍, 側行迴身, 向本處散立. 第一聲絕, 一時捺槍, 便解幡旗; 第二聲絕, 一時舉槍; 第三聲絕, 一時簇隊. 一看大總管處兩旗交, 即五隊合一隊, 即是二百五十人爲一隊, 其隊法及卷幡, 舉槍, 簇隊, 鬥戰一依前法. 一看大總管處五旗交, 即十隊合爲一隊, 即是五百人爲一隊, 其隊法及舉幡, 舉槍, 簇隊, 鬥戰法並依前. 聽第一聲角絕, 即散, 二百五十人爲一隊; 第二聲角絕, 即散, 五十人爲一隊. 如此凡三度, 即教畢. 諸十將一時取大將賞罰進止. 第三角聲絕, 即從頭卷引還軍. 一云: 初出營, 豎矛戟, 舒旗幡, 鳴鼓角. 行三里, 辟矛戟, 結旗幡, 止鼓角. 未至營三里, 復豎矛戟, 舒旗幡, 鳴鼓角. 至營, 復結旗幡, 止鼓角. 臨陣皆無諠譁, 明聽鼓音, 謹視旗幡, 麾前則前, 麾後則後, 麾左則左, 麾右則右, 視麾所指, 聞三金音止, 三金音還.”

24) 신라는 주력군단 六停과 九誓幢의 15개 부대는 물론 十停, 五州誓, 三武幢 등을 비롯한 여러 부대에 각각 고유한 衿色 마크를 부여했다. 금색은 각 군부대의 실제적인 존재를 구체화하고 서로를 구분하는 상징이다. 군대에서는 분명치 않는 구분을 피하고 통제되지 않고 흩어진다거나 산만성과 무의하고 위험한 집결의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래야 대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해진다.

병사들은 지휘관의 신호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각 병사의 신체와 그것에 의해 조작되는 무기가 맞닿은 모든 면에 지휘자의 권력이 스며들어 무기와 신체 양자를 묶어 두었다. 각 병사들이 메커니즘 속에서 신체를 복종하도록 만드는,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더욱 유용하게 하는 신체능력에 구속을 확장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육화진법이란 엄격한 규율을 확산시켜 아무리 사소한 세부까지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거대한 육화의 구조를 한눈에 포착하는 바로 그것이다.<sup>25)</sup>

한편 신라의 오른쪽 대열이 강했다고 하는 것은 백충이란 용감한 영웅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만 볼 수 없다. 창병의 대열에는 항상 힘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왼손에 방패를 오른손에 창을 든다. 앞으로 나아가 갈 때 1열의 창은 허공으로 나가지만 2, 3, 4열의 경우 각 열의 병사들의 간격만큼 뒤로 포개진다. 동시에 각각 바로 앞 대열의 병사 오른손 팔뚝 두께만큼 더 우측으로 창을 내밀게 된다. 대열은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사선이 형성된다.<sup>26)</sup>

고대 그리스 테베의 에파미논다스가 이룩한 군사적 변혁은 기존의 팔랑스(Phalanx-陣)가 왼쪽 우익에 힘이 쏠리는 특이한 현상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목한 데 있다. 이 현상은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병사들이 오른팔로 창을 들고 왼팔로 방패를 드는 사실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이로 인해서 보통은 우익이 승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때로는 양측 우익 모두가 승리할 때도 있다.

에파미논다스는 테베군의 본래 강한 우익을 억제시키고 중심을 강화한 좌익을 먼저 밀고 나가게 했다. 그는 좌익만 공세적 충격을 가하게 했고,

25) 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26) 윤일영, 「신라가 대백전시(서기 660) 투입하였던 부대 수, 병력 수, 부대편제, 전투대형」, 『군사학연구』 5, 대전대학교 군사연구원, 2007, 528-551쪽. 앞 논문의 저자에게 설명을 직접 들은 것이다.

우익은 전진을 자제하며 최대한 전투를 회피하고 위치를 고수하면서 상대방을 붙들고 늘어져 고착시키려 했을 뿐이다. 이러한 우익의 견제 임무 수행은 적은 병력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추가병력이 없이도 공세를 취하는 좌익을 보강해서 그곳에서 절묘한 병력 우위를 이룰 수 있었다. 아군의 좌익이 우세한 병력으로 상대방의 우익을 제압하고 나면 어떤 경우든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대방의 좌익은 저절로 무너져버렸다.

에파미논다스는 왼쪽의 중심을 깊게 할 경우 정면축소에 따라 노출되는 측면을 기병이 엄호하게 했다. 그는 기병과 보병의 효과적인 혼성조직을 만들었다. 이제 좌익은 정면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적에게 포위되지 않았고, 중심강화에 따른 충격력을 이용해서 적의 우익의 공격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다. 스파르타의 강철 팔랑스(陣)는 이렇게 테베에 의해 돌파되었다.<sup>27)</sup>

당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은 테베에 있었다. 그는 스파르타를 격파한 테베의 陣法을 목격했다. 그는 테베군의 그것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조국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자신의 군대에 보다 발전적으로 적용했다. 주지하다시피 그것은 그리스식 Hoplite와 차이가 나는 마케도니아식 Phalangist 였다.<sup>28)</sup>

Hoplite, 그리스 중장보병의 무장은 시야와 호흡을 확보한 T자 모양의 공간이 있는 투구를 쓰고, 둥글고 큰 방패(Hoplion)를 들고, 단검을 허리에 차고 2m 남짓한 창을 들었다. Phalanx 전투방식은 창도 사용하지만 방패로 부딪혀 서로 미는 것도 중요했다. 방패가 중요한 무기였다. Hoplite들은 그리스 도시의 시민권자들로 이루어졌다. 자신들이 직접 구입하고 준비한 갑옷·방패·검·투구·망토·다리가리개·창으로 무장했다. 하중이 내리갈

리는 무장만큼이나 엄청난 체력이 개인에게 요구되었다. 비싼 무장을 한 그들은 다수를 확보하기 힘든 존재였다. Phalangist들도 그리스식 Phalanx 진형을 취했다. 하지만 무장은 달랐다. 전체적인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의 지도하에 모집되고 훈련된 그들은 갑옷을 살 돈이 없는 농민들이나 목동들이었다. 값싼 가죽을 입었고, 주력무기는 휘어질 만큼 긴 장창(Sarissa)이었다.

소크라테스도 용감한 전사였듯이 일반적으로 시민인 Hoplite들은 전투 후 생업에 복귀했다. 반면 모집된 Phalangist들은 고난도의 훈련을 받고 그대로 전문 직업군인으로 남았다. 규율, 경험, 조직력 등에 있어 Phalangist들이 Hoplite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스파르타 Hoplite에 버금가는 전문 전사집단이었다.

마케도니아의 병법은 왕정체제의 산물이었다. 무장이 가볍고 규율 있는 Phalangist들로 구성된 Phalanx는 Hoplite들의 그것보다 기동력과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쉽게 모집할 수 있어 가격대비 성능도 좋았다. 창을 휘두르는 방식도 그리스 Hoplite들은 어깨 너머로 창을 들고 휘두르는데 반해 마케도니아 Phalangist들은 두 손으로 거의 허리선 가까이 창을 두고 찌르는 방식이었다. Hoplite의 방패는 크고 둥글었지만 Phalangist의 방패는 작고 보잘 것 없었다. 그냥 왼팔에 걸고 다닐 정도였다. 때문에 Phalangist들은 창 길이의 조직력에 더욱 의존했다. 북부 변방의 마케도니아는 Phalangist를 주력삼고 필립왕의 지도하에 다른 그리스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다.

마케도니아에는 테베보다 더 잘 훈련된 기병이 많았다. 그것은 마케도니아의 진법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종래 그리 길이가 길지 않았던 창 길이를 몇 배로 늘려 기병돌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거 양쪽 날개의 보호에만 주력하던 기병대를 증강하여 보병 밀집대열이 전열을 유지하는 동안 기병을 이용한 우회공격을 하는 전술로 동방원정에서 승승장구하게 된다. 기병과 보병이 보다 긴밀하

27) 텔브뤼크 著, 민경길 譯, 『兵法史』 1권, 한국학술정보, 2009, 183-185쪽.

28) 이하 Hoplite와 Phalangist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했다. Connoly, Peter, *Greece and Rome At War* Greenhill, London, 1998. 필자는 디펜스 코리아의 회원이신 오영선 선생에게 이 책을 소개받았다.

게 결합된 진법은 혁명적이었다.<sup>29)</sup>

왜인과 싸웠던 신라군의 모습을 복원해 보자. 신라군도 왜군도 승리를 위해 온갖 고민을 했고, 머리를 썼다. 순간순간 자신에 유리하게 진의 형태를 바꾸려고 했을 것이다. 양군은 모든 신경을 집중시켜 서로의 눈치를 보았을 것이며 기회가 오면 결단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전쟁이란 속이는 것이다.

『일본서기』의 기록에서 진을 이루고 싸우는 신라인들이 “왼쪽을 비워놓고 오른쪽을 방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쓸 수 없는 왼쪽 대열의 중심을 약하게 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오른쪽 대열의 중심을 강화시킨 것이다. 이는 위의 기록 “田道는 날랜 기병을 계속하여 보내 그 왼쪽을 공격하였다”라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왼쪽을 약화시켰지 완전히 비운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신라군이 왜 오른쪽 대열의 중심을 강화시키고 왼쪽의 그것을 약화시켰을까. 신라군은 그 때문에 왜인 기병의 공격을 받고 무너졌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다. 신라군이 진법을 잘 운영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신라군의 대열은 왜인들의 대열에 따라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신라군은 그렇게 해야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왜인들이 신라군의 왼쪽 대열을 상대하는 오른쪽 대열을 약화시키고, 신라군의 오른쪽 대열을 상대하는 왼쪽 대열을 강화시켰다면 신라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절호의 찬스였다. 왼쪽을 거의 비우다시피하고 오른쪽을 강화시켜 단숨에 중심이 깊어진, 한층 강화된 왜인의 왼쪽 대열을 격파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였다. 약한 왼쪽 대열 쪽으로 예상치 못한 왜군의 기병들이 밀려와 그것이 무너지고 주력인 오른쪽 대열의 측면을 난타당했다. 그때 신라군의 주력인 오른쪽 대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왜군의 왼쪽 대열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29) 델브뤼크 著, 민경길 譯, 『兵法史』1권, 한국학술정보, 2009, 204-205쪽.

우리는 여기서 왜인의 무기와 전투 형태에 대해서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세기 중반경 왜인들은 모와 방패, 활 등 아주 기본적인 무기만으로 무장하였다. 『三國志』魏志 倭傳을 보면 “병장기로는 모(矛-창), 순(楯-방패), 목궁(木弓)을 사용했다. 목궁은 아래가 짧고 위가 길다. 죽전(竹箭-대나무 화살)은 철촉(鐵鏃-쇠 화살촉)이나 골촉(骨鏃-뼈 화살촉)을 쓴다”고 한다.<sup>30)</sup>

왜인들의 활은 대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지금도 일본에는 대나무 활을 만드는 장인이 있는데 재료인 대나무를 20년 이상 저장하여 묵힌 후 활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현재에도 일본의 활은 『三國志』魏志 倭傳의 기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래가 짧고 위가 긴 비대칭 竹弓이다.

[그림 5] 일본 고유의 활 히고유미



일본에서는 ‘히고유미’라고 부른다. 활은 한손으로 시위를 당기고 다른 한손으로 활대를 잡는다. 그 활대의 손잡이 부분이 전 활대의 아래 1/3부분에 위치해 있다. 손잡이가 훨씬 아래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다. 현재 히고유미는 190~220cm의 장궁이다. 위치 왜전 시대에 일본인들은 지금보다 작아 그 길이는 지금보다 크지 않았을 수도 있다.

히고유미는 미관상으로 보기에 당기면 위쪽이 더 많이 휘어진다. 이렇게 되면 위쪽과 아래쪽, 시위와 활이 이

30) 『三國志』, 魏志 倭傳, “兵用矛, 楯, 木弓. 木弓短下長上, 竹箭或鐵鏃或骨鏃.”

루는 각도가 서로 다른 '비대칭'이 되는데 이러한 비대칭 현상은 장점이 있다. 화살을 시위에 거는 포인트가 시야보다 살짝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화살을 발사했을 때 상탄이 나게 되어 있다. 중력의 영향을 받은 화살, 비행체는 이 중력을 이길 만한 강력한 힘이 계속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한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있다. 화살의 경우 총알보다 자체적인 에너지양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먼 거리를 쏘기 위해서는 목표보다 위쪽으로 조준해서 쏘야 한다. 애초부터 상탄이 나게 되어 있는 비대칭 활의 장점은 이것이다. 화살을 쏘면 상탄이 나면서 위쪽으로 날아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데, 그때 자신이 조준한 목표에 맞게 된다. 장거리에서 집단 간의 전투에 매우 효율적인 구조이다. 물론 활을 높이 쳐들고 쏘면 비대칭 구조가 아니더라도 포물선을 그리면서 멀리 날아가지만, 자신의 시야에서 한참 벗어나게 들고 오조준하는 것과 최소한 자신의 시야 내에서 어느 정도 조준을 하는 것은 많이 다르다. 비대칭은 자신의 시야 내에서 먼 거리의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왜인들은 "철촉(鐵鏃-쇠 화살촉)이나 골촉(骨鏃-뼈 화살촉)을 쓴다"고 한다. 당시 일본에서 생산되지도 않는 철을 수입하여 화살촉으로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화살촉의 무게 때문이다. 어느 정도 중량이 있어야 시위를 떠난 화살이 멀리 날아갈 수 있고, 위력도 좋아진다. 골촉은 일본열도로 철이 들어오기 전부터 사용했던 것 같다. 그러다 철촉을 사용했지만 그 자리를 모두 물려주지 않았다. 비싼 비용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기시대에도 여전히 석기가 많이 사용되었듯이 오히려 골촉을 왜인들은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 일본에서 石鏃은 물론이고 銅鏃도 사용되었다. 奈良현 남부의 吉野ヶ里遺蹟에서 대형의 墳丘墓에 포함된 甕棺에는 다수의 石鏃이 박힌 것으로 보이는 인골이 확인되고 있으며, 석촉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보인다. 大和의 매쓰리山古墳(4세기 중엽)에서 무려 230개의 銅鏃과 200개의

鐵鏃, 주변지역인 山城의 妙見山古墳과 近江의 雪野山古墳 100개의 銅鏃이 출토되고 있다.<sup>31)</sup>

한편 矛를 들고 보병전을 하는 왜인들은 어떠한 모습일까. 矛는 개개인 이 싸울 때 쓰는 무기라기보다 대열을 이룰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 중국의 병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陣을 이루고 싸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 정도는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陣이라는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sup>32)</sup>

奈良현 남부의 吉野ヶ里遺蹟에서 대형의 墳丘墓를 정점으로 두 줄로 장대하게 늘어난 甕棺墓와 土壙墓의 열은 유력한 수장과 일반적 구성원의 관계를 상징하기에 충분하다. 墳丘墓에 포함된 甕棺에서는 세형동검과 管玉 등이 출토되는 반면에 대열 속의 甕棺에는 다수의 石鏃이 박힌 것으로 보이는 인골이 확인되고 있다. 墳丘墓가 전쟁지도자로서 수장일족의 존재를 보여준다면 甕棺묘와 토광묘의 열은 전투에 참가했던 일반 구성원의 존재를 보여준다. 墳丘墓의 수장은 전쟁을 통해 정치적 지배를 강화하였고, 강화된 지배력은 일반구성원을 고분을 축조하는 노동력으로 동원할 수 있었으며, 다시 전투조직의 구성으로 전개되었다. A. Ferril은 전쟁을 인간들이 집단적으로 대오(formation)를 맞춰 싸우는 행위라고 정의하지만, 吉野ヶ里遺蹟의 매장양상은 사후에도 대오를 잃지 않으려는 전투조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sup>33)</sup>

물론 왜인들은 창만 들었던 것이 아니다. 오른손에는 창,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진을 만들어 전투했을 것으로 보인다. 『三國志』 魏志 倭傳 방패를 '盾'이라 표현하지 않고 앞에 나무木 변을 붙여서 '楯'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왜인들의 방패가 나무방패여서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철이 많다면 나무방패에 얇은 철판을 입혀서 보강했을 것이다. 하지

31) 李永植, 「古代的 戰爭과 國家形成」, 『한국고대사연구』 16, 1999, 28-29쪽.

32) 이병선(화석월드)의 구술.

33) 李永植, 「古代的 戰爭과 國家形成」, 『한국고대사연구』 16, 1999, 26-27쪽.

만 당시 왜는 철을 자체 생산할 수 없었고, 가야지방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처지였다. 철은 아주 귀한 물질이었다. 당시 기록인 위지 왜전에 무기 종류 가운데 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일본서기』 권11, 인덕천황 12년 가을 7월 조를 보면 “고(구)려에서 철로 만든 방패와 과녁을 바쳤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sup>34)</sup> 그해 8월 更子 초하루 己酉에 인덕천황은 고구려에서 온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고구려에서 온 철 방패가 얼마나 견고한지 실험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천황은 고구려산 철 방패와 철 과녁에 활을 쏘아 보게 했다. 아무도 그것을 뚫지 못하였으나, 모인숙네(盾人宿禰)만이 철 과녁을 뚫었다. 그러자 고구려에서 온 사신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한다.<sup>35)</sup>

고구려는 철이 귀한 왜국에 철판을 입힌 방패와 과녁을 보내 자국의 풍부한 철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 같다. 왜인들은 고구려의 철 방패를 보고 놀랐을 수도 있다. 방패에 철이 입힌다 말인가. 그래서 그 성능을 실험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철이 귀한 왜국에서 일반적으로 나무방패를 사용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왜국은 6세기에 가서야 철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일본학자들은 보고 있다.<sup>36)</sup>

왜인들과 전쟁을 할 당시 신라인들이 얼마나 긴 창을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수세기에 걸친 경험을 통해 신라인들은 그들의 주 무기인 창을 가장 유용한 제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즉 전투 시 가장 효율적일 수 있도록 그 길이와 굵기 그리고 무게 등을 신중하게 계산하였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가난한 병사들이 허리에 검을 차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34) 인덕천황 12년은 일본의 기년으로 324년이 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일본서기』 기록은 기년상의 문제가 많다. 보통 일본학계에서 120년을 내려서 본다. 그렇다면 444년이 된다.

35) 『일본서기』 권11, 인덕천황 12년 가을 8월 조.

36) 鈴木靖民, 『文獻からみた加耶と倭の鐵』, 『古代東アツアにおける倭と加耶の交流』, 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書 第110集, 2004, 158쪽.

점이다. 신라보다 부유했던 고구려의 창병들도 허리에 검을 차고 있지 않았다. 이는 4세기 중엽 고구려 고분벽화(안악 3호분)에서 확인된다. 물론 신라인들은 육중하고 비싼 금속방패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방패보다 창에 의존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그들은 긴 창을 사용했고, 陣의 조직력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유서 깊은 신라의 주력 군조직 ‘黑衣長槍末步幢’의 존재가 이를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 6. 맺 음 말 : 黑衣長槍末步幢과 長槍幢

지금까지 신라의 흑의장창말보당의 성격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본문을 요약하고, 육정구서당 각 사단 예하의 黑衣長槍末步幢과 구서당의 일개 사단인 長槍幢을 비교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신라는 400년 광개토왕의 남정 이후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다. 고구려는 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한 신라를 구원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군사 시스템을 전해주었다. 신라군대의 군 편제 단위는 ‘幢’이었다. 그것은 고구려의 영향이었다.

「광개토왕비문」을 보면 왕 14년(404)에 ‘王幢’이 출동하여 왜구를 궤멸했다는 문구가 있고, 「중원고구려비」에도 ‘新羅土內幢主’가 보인다. 우연히도 『일본서기』 권14, 웅락천황 8년 조의 기록을 보면 “고려왕은 精兵 100명을 보내어 신라를 지키게 했다”고 한다. 1개 幢의 병사가 100명이라는 사실은 『魏書』 권103, 蠕蠕傳에서도 확인되며, 신라의 弩幢의 경우도 그러하다.

6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단양신라적성비」를 보면 ‘鄆文村幢主’·‘勿思伐城幢主’가 있다. 고구려는 초기 신라에 군사제도를 이식시켰고, 지워지지 않는 깊은 영향을 남겼다. 추문촌당, 물사벌성당이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幢이라면 黑衣長槍末步幢은 무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幢이었다. 하지만 창이

란 무기는 너무나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무기였다. 때문에 추문촌당, 물사벌 성당에도 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고대 사회를 비교적 사실적으로 전하는 『三國志』 동이전 동옥저전과 동예전에서도 창이 가장 보편적인 무기였던 것이 확인된다. 『三國志』 동이전 동옥저전을 보면 창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동옥저에는 소나 말이 적어 창을 가지고 보전을 잘한다고 한다. 창은 개개인이 싸울 때 쓰는 무기라기보다 대열을 이룰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 같은 책 동예전을 보면 동예인들은 3丈 길이의 창을 소유하고 있었다. 휘어질 만한 길이의 창이었다.

그토록 긴 창을 사용했던 것은 이유가 있다. 5m의 창과 6m의 그것을 가진 두 그룹의 밀집대형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2개의 밀집대형이 접근전을 벌였을 때 1m가 짧은 전자는 후자를 찌를 수 있는 위치에 가기 1m 앞 지점에서 후자의 공격을 받게 된다. 창이 길이가 짧다는 것은 치명적이다.

『일본서기』 권11, 인덕천황 53년 5월 조에 신라군 대열(陣)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36회 왜인과의 전쟁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전투내용 그 자체를 전하는 것은 거의 없다. 전투상황을 전하고 있는 『일본서기』의 기록은 소중하다.

포로가 된 신라군 한 명이 왜인들에게 정보를 주었다. “신라군 가운데 百衝이라 하는 날래고 용감한 군인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다. 용감한 그는 신라의 오른쪽 대열(陣)의 선봉장이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왼쪽 대열은 약하다. 그러니 기회를 보아 왼쪽을 집중공격하면 신라군 대열은 무너질 것이다.” 신라가 왼쪽 대열을 비우고 오른쪽 대열을 강화하자 왜인이 정예기병을 연이어 출격시켜 왼쪽을 공격하였다. 그러자 신라군의 대열이 무너졌고, 그 틈으로 왜병들이 몰려 들어갔고, 흩어진 신라군은 수많은 전사자를 냈다.

기록을 자세히 보면 百衝이란 자는 지휘관이요 현장에서 전투를 하는 전사이며, 영웅이다. 하지만 陣에서 군인이 얼마만큼의 용기와 힘을 지닌 존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조직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부과된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陣法이란 개개인의 무용이나 현재와 같은 전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병사들의 유기적인 연결에 집중하게 된다.

여기서 신라군 지휘관 이름 ‘百衝’은 주목된다. 신라의 1개 ‘幢’인원이 100명이라는 것과 무관한 것일까. 幢主는 100명을 이끄는 ‘백부장’이다. 100명으로 구성된 그의 부대는 적을 향해 부딪치는(衝) ‘百衝’일 수도 있다.

黑衣長槍末步幢의 黑衣는 부대의 제복 색깔이 흑색이라는 뜻이며, 長槍末步幢이란 장창을 든 병사들이 간격과 보폭을 좁혀서 ‘末步狀態=密集狀態’에서 전투를 하는 최소 단위라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 ‘末步’란 ‘速步’의 반대말이 된다. 밀집된 상태에서 속보로 가면 대열이 흩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폭을 좁혀서 末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대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해진다. 신라의 장창보병은 밀집대형을 이루고 전투에 임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밀집하여 고슴도치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위력을 발휘한다.

신라의 오른쪽 대열이 강했다고 하는 것은 백충이란 용감한 영웅 때문이라 볼 수 없다. 창병의 대열에는 항상 힘이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 왼손에 방패를 오른손에 창을 든다. 앞으로 나아갈 때 1열의 창은 허공으로 나가지만 2, 3, 4열의 경우 각 열의 병사들의 간격만큼 뒤로 포개진다. 동시에 각각 바로 앞 대열의 병사 오른손 팔뚝 두께만큼 더 우측으로 창을 내밀게 된다. 대열은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기울어지는 사선이 형성된다.

고대 그리스 테베의 에파미논다스는 팔랑스(Phalance-陣)가 우익에 힘이 쏠리는 현상을 주목했다. 그것은 단지 병사들이 오른팔로 창을 들고 왼팔로 방패를 드는 사실 때문에 생긴 결과였다. 보통은 우익이 때로는 양측 우익 모두가 승리할 때도 있었다. 에파미논다스는 왼쪽의 중심을 깊게 할 경우 정면축소에 따라 노출되는 측면을 기병이 엄호하게 했다. 좌익은 정면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적에게 포위되지 않았고, 중심강화에 따른 충격력을 이용해서 적의 우익의 공격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다. 새로운 진법을 발견하고 자국의 군대에 적용시킨 테

베는 인류 초유의 전사국가 스파르타를 패배시키고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다.

왜군과 싸웠던 신라군의 모습을 다시 보자. “왼쪽을 비워놓고 오른쪽을 방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쓸 수 없는 왼쪽 대열의 중심을 약하게 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오른쪽 대열의 중심을 강화시킨 것이다. 그것은 왜인들이 신라군의 왼쪽 대열을 상대하는 오른쪽 대열을 약화시키고, 신라군의 오른쪽 대열을 상대하는 왼쪽 대열을 강화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라군이 왼쪽을 약화시켰지 완전히 비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은 왜인의 속임수였다. 약한 왼쪽 대열 쪽으로 예상치 못한 왜군의 기병들이 밀려와 무너지고 주력인 오른쪽 대열의 측면을 난타했다. 신라군의 주력인 오른쪽 대열은 왜군의 왼쪽 대열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말해주듯 왜인들은 신라를 지속적으로 침략했다. 처참한 전쟁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되었다. 신라의 변경을 약탈했고, 왕성을 포위했으며, 수많은 사람을 잡아갔다. 창으로 무장한 신라인들은 침략자 왜인들을 상대로 대열(陣)을 이루고 싸웠다. 양측에 기병이 있다고 해도 극소수였으며, 왜인의 대열과 신라인의 대열이 부딪치는 보병 대 보병의 전투가 주를 이루었다. 이보다 후대에 제도화된 것으로 보이는 黑衣長槍末步幢은 초기 신라 장창보병의 모습을 전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아닐까.

하지만 黑衣長槍末步幢의 중요한 기능이나 성격도 전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거나 다양화되어야 했다. 나당전쟁기는 대기병전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점이었다. 당에 이끌려온 수만의 말갈과 거란 기병이 황해도와 경기도 북부 들판을 뒤덮었다.<sup>37)</sup>

사실 장창보병인 黑衣長槍末步幢은 태생적으로 對기병 작전 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賊기병이 장창보병 대열을 향해 접근해 올 때 활이나 석궁으로 그 숫자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37) 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장창보병 내에서도 궁수와 석궁수가 필요하다. 여기서 화살을 적 기병에게 얼마나 많이 발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며,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요구된다.

660년 蘇定方이 이끄는 13만 당나라 군대가 백제에 상륙했고, 신라군은 그들과 함께 군사작전을 감행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당나라의 군대는 661년 신라에 창궐한 천연두란 전염병도 가지고 왔지만<sup>38)</sup> 군사기술도 가지고 왔다. 소정방은 657년 중국인 장창보병과 유목민 회홀기병을 결합하여 서돌궐의 군대를 격파한 영웅이었다. 그에게는 對騎兵 장창보병의 운용능력이 있었다.<sup>39)</sup>

나당군사동맹과 공조 작전은 당의 군사기술이 신라군에 자연스럽게 이전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나라군이 신라군을 효과적으로 부리기 위해서라도 그러해야 했다. 유목민 기병들을 제압한 노련한 당나라의 군사기술은 신라군에게 흘러들어왔고, 이로부터 12년 후 신라가 당에 대항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었다.

672년 신라 중앙군단 九誓幢의 하나인 長槍幢이 창설되었다. 장창당은 당에 이끌려 황해도 평야지역에 쇄도한 수만 규모의 말갈기병을 막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적인 對騎兵 長槍步兵 사단이었다.<sup>40)</sup> 장창당은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장창보병이었던 것이다.

대보병 작전을 주로 했던 신라의 장창보병이 동시에 대기병작전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나당전쟁기에 창설된 장창당은 앞서 黑衣長槍末步幢의 경험 없이 바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앞선 시대 장창보병 운영의 경험과 당의 전술 유입이라는 역사 위에서 만들어졌다. 통일전쟁은 신라병제는 물론이고 신라군의 주력인 장창보병의 전술에도 심대한 변화를 주었다.

38) 이현숙, 「7세기 통일전쟁과 전염병」, 『역사와 현실』 47, 2003.

39) 徐榮教, 「蘇定方の長槍步兵과對西突厥戰鬥」, 『中國古中世史研究』 15, 2006, 273-300쪽.

40) 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표 1> 九誓幢軍官組織表

部隊名 軍官職名	綠衿誓幢	紫衿誓幢	白衿誓幢	緋衿誓幢 長槍幢	黃衿誓幢	黑衿誓幢	碧衿誓幢	赤衿誓幢	靑衿誓幢	官等 規定
	진명 5 (583) 신라인	진명 47 (625) 신라인	문무 12 (672) 백제인	문무 12 (672) 신라인	신문 3 (683) 고구려인	신문 3 (683) 말갈인	신문 6 (686) 보덕성민	신문 6 (686) 보덕성민	신문 8 (688) 백제殘民	
將軍	2	2	2	2	2	2	2	2	2	眞骨角干- 級浪
大官大監	4	4	4	4	4	4	4	4	4	眞骨6-13 次品6-11
隊大監	(領馬兵)	3	3	3	-	3	3	3	3	6-13
	(領步兵)	2	2	2	4	2	2	2	2	6-13
弟監	4	4	4	4	4	4	4	4	4	10-13
監舍知	1	1	1	1	1	1	1	1	1	12-13
少監	(屬大官)	13	13	13	13	13	13	13	13	12-17
	(領騎兵)	6	6	6	3	6	6	6	6	12-17
	(領步兵)	4	4	4	8	4	4	4	4	12-17
火尺	(屬大官)	10	10	13	10	13	13	13	13	12-17
	(領騎兵)	6	6	6	-	6	6	6	6	12-17
	(領步兵)	4	4	4	8	4	4	4	4	12-17
軍師幢主	1	1	1	1	1	1	1	1	1	7-11
大匠尺幢主	1	1	1	1	1	1	1	1	1	7-11
步騎幢主	4	4	4	-	4	4	4	4	4	8-13
著衿騎幢主	18	18	18	-	18	18	18	18	18	8-13
黑衣長槍末步幢主	24	20	-	-	20	20	20	20	20	6-13
軍師監	2	2	2	2	2	2	2	2	2	11-13
大匠尺監	1	1	1	1	1	1	1	1	1	10-13
步騎監	4	4	4	-	4	4	4	4	4	11-13
著衿監	18	18	18	-	18	18	18	18	18	11-17

물론 당의 기병이 쇠도하던 나당전쟁기에 黑衣長槍末步幢도 대기병 작전을 수행해야 했을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九誓幢 9개 사단 가운데 7개 사단 예하에 흑의장창말보당이 20~24개씩 존재한다. 장창당 예하

에 黑衣長槍末步幢이 없다. 그것은 같은 성격의 장창보병을 중복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sup>41)</sup>

(원고투고일 : 2009. 12. 1, 심사수정일 : 2010. 1. 8, 게재확정일 : 2010. 2. 9)

주제어 : 黑衣長槍末步幢, 長槍幢, 九誓幢, 六停, 百衝, 幢, 長矛, 羅唐戰爭, 蘇定方, 倭人

41) 백제인으로 구성된 白衿誓幢에도 흑의장창말보당이 없다. 그것은 신라와 수백 년간 싸웠던 백제인들의 이탈을 우려하여 대기병 방어조직을 신라인 부대에 의존하게 했기 때문이다(徐榮教, 『羅唐戰爭史研究』, 아세아문화사, 2006, 162-179쪽).

&lt;ABSTRACT&gt;

*Silla's* Black Long-pikeman(新羅 黑衣長槍末步幢)

Seo, Young-kyo

Spear-armed troops continued to be important elements in many armies until the advent of reliable firearms. The Long-pike(長槍) was the spear used by the Ancient *Silla*(新羅) Forces. The actual length of the Long-pike(長槍) is now unknown, but apparently it was twice as long as the doru. This makes it at least 14 feet (about 4.3m), but 18 feet (about 5.5m) appears more likely. The great length of the spear was balanced by a counterweight at the rear end, which also functions as a butt-spike, allowing the Long-pike(長槍) to be planted into the ground. Due to its great length, weight and differing balance, a Long-pike(長槍) was wielded two-handed. This meant that the aspis was no longer a practical defense. Instead, the Long-pikeman(長槍步兵) strapped a smaller pelt shield (usually reserved for light skirmishers-peltasts) to their left forearm. Although this reduced the shield wall, the extreme length of the spear prevented most enemies from closing, as the spears of the first three to five ranks could all be brought to bear in front of the front row. This spear had to be held underhand, as the shield would have obscured the soldier's vision had it been held overhead. It would also be very hard to remove a Long-pike(長槍) from anything it stuck in (the earth, shields, and soldiers of the opposition) if it were thrust downwards, due to its length.

The *Silla*(新羅) Long-pikeman(長槍步兵) phalanx could also lose its cohesion while moving through broken terrain: doing so could create gaps

between individual blocks/syntagmata, or could prevent a solid front within those sub-units as well, causing other sections of the line to bunch up.

Key Words : *Silla's* Black Long-pikeman, Pikeman, *Silla* 9-legion, *Silla* 6-legion, Centurion, Touk, Long-lence, The *Tang-Silla* War, General *So-jeongbang*, Japanese